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EUSO735

한글 성명: 드코스뚝스카야 크세니아

인연이란 무엇일까? 사전에서 찾아보면
 사 람 들 사 이 에 맺 어 지 는 관 계 라 는 뜻 이
 나 온 다. 그 런 데 사 람 마 다 인 연 에 대 한
 개 념 이 다 르 지 않 을 까? 나 는 인 연 이 라 는
 말 을 들 으 면 민 져 가 읽 으 단 퇴 천 득 각
 가 님 의 수 될 이 떠 오 른 다. 아 사 코 라 는 일
 본 여 자 라 한 국 남 자 의 스 픈 사 람 에
 대 한 이 야 기 가 아 직 까 지 내 마 음 한 국
 석 에 남 아 있 다. 아 바 그 것 때 문 에 나 도
 '인연' 하 면 내 첫 번 대 사 람 에 대 해 가 장
 먼 저 생 각 하 게 된 다.
 3월 18일 쌀쌀한 봄 아침 개미 났을 때
 북 터 이 상 한 히 전 한 느 낌 방 이 춥 고
 열 에 있 는 사 람 아 무 도 없 다. 그 날 까 지
 매 년 그 날 에 일 이 났을 때 맨 먼 저 보 는
 것 이 가 족 들 의 사 람 으 로 가 득 찬 흰 굴 라
 생 일 선 볼 들 이 있 다. 하 지 만 오 늘 은 그 곁
 지 않 았 다. 오 늘 은 나 만 이 춥 고 작은
 방 에 있 다. 나 는 그 순간 에 말 마 나 외
 로 을 까? 침 대 에 누 워 서 다 시 감 들 었 다.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EUSO135

한글 성명: 드로스똥스카야 크세니아

	오	후	다		이	제		일	이	나	야	겠	다		모	글		코	코
나		때	분	에		수	없	도		문		듣	고		할	일	도		없
다		심	심	하	다		하	지	만		생	일		날	에		슬	프	연
만		되	지		한	국	메		같	이		온		벨	라	죽	스		친
구	들	이		있	어	서		그	나	바		다	행	이	다		저	녁	에
친	국	들	을		반	나	서		생	일		선	물	을		받	고		떠
뜻	한		죽	하	한	다	는		왕	문		들	어	서		기	분	이	
코	금		플	미	젖	다		다		친	국	들		덕	분	이	다		내
가		그	들	메	게		된	바	나		고	바	웠	는	지		말	로	
표	현	할		수		없	다		늘	은		시	간	이	있	는	데		우
리	는		헤	어	기	기		싫	어	서		바	메		값	다		거	기
서		한	데	이	블		값	고		음	로	수	를		마	시	변	서	
수	다	는		떨	고		있	었	다		바	로		그	때		나	는	
나	를		쳐	다	보	는		눈	빛	을		들	켰	다		기	금	도	
그		하	얀	색		셔	츠		남	자	다	운		손		할	짝		웃
는		민	국		기	떡	난	다		우	리	는		산	짝		미	소	를
지	면	서		마	죽	천	다		별		분		후		우	리	는		별
씨		다		같	이		앉	아		있	었	다		시	간		가	는	
건	도		조	르	고		2	시	간	동	안		우	리	는		아	복	부
담		없	이		이	야	기	를		나	뵈	다		마	지	막	때		같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EU-50735

한글 성명: 드로스롭스카야 크세냐

이 사진을 찍고 카톡 아이디를 주고 받
았다. 그 후에 와 우리가 딱 3 번 만났다.
만나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볼링도 쳤
고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산책도 했고
커피숍에서 열매 애플을 먹으면서 유트브
도 같이 봤다. 이 야기 들 통해서 우리는
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
같다. 나는 그 남자의 미련과 학교 시
절, 군대, 일,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들 들
을 수록 권해 주는 것 같았다. 그건 무슨 정
말 그걸 물어? 지금도 잘 모르겠다. 세 번
만났을 때 나는 이걸이 우리의 마지막
만남 이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. 우리
는 전처럼 같이 밥을 먹고 커피숍을 마
셨고 ~~분꽃~~ 벌꽃을 구경한 후에 헤어졌
다.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연락이 안 왔다.
결국 에 나도 포기 했다. 그걸이 뭐였이었
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. 우리는 사랑
에 대해 이야기 해 본 적도 없었고 권
주 사이도 아닌 것 같았다. 그 래도 아

제 5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EUS0435

한글 성명: 드로스뚱스카야 쿠세니아

클	다	운		축	익	을		같	이		만	들	이	즉	셔	서		고	밧
다																			
	아	까	도		벌		년		혹	미		나	는		불	에		서	울
메		다	시		가	게		덜	다	변		신	춘	역		근	처	에	서
벌	꽃	을		구	경	하	변	서		그		날	자	를		생	각	날	지
도		보	른	다		우	리		사	이	가				벌	꽃		개	하
이		순	수	하	고		아	를	답	고									
	은		내		민	생	에		불	을		가	저	와	서		고	밧	고
아	무	것	도		혹	히	하	지		않	는	다			인	연	이	라	면
다	시		만	나	겟	지?													
	나	는		미	디	메	션	가		그	런		말		들	었	다		
쿨	은		인	연	이	간		사	작	이		쿨	은		인	연	이		아
니	라		끝	이		쿨	은		인	연	이	다		나	도		이		말
을		뵈	고		살	아	갈		것	이	다		운	명	이	면		다	시
만	나	고		그	럼	지		않	으	면		천	나	랑	개		대	한	
소	중	한		축	익	으	로		남	길		것	이	다					